

친환경 에너지 허브·남해안권 신발전 거점 조성 급선무

전남도 대선공약 64개 과제 내용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구축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립중앙의료원 다도해 분원 건립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등 제시

2022년 대선을 통해 들어선 정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인구·자원의 분산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국가 불균형 정책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남도는 서둘러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도 높다. 발전이 더디고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등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전남'라는 비전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의 글로벌 거점 ▲글로벌 과학 기술 선도국가 도약 ▲대한민국 및 글로벌 남북원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을 4대 목표로 내세웠다.

◇8대 추진 전략 64개 과제에 82조원 이상 투입돼야 전남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류한 과제는 모두 64개다. 이 가운데 핵심과제가 32건, 지역발전과제 24건, 제도개선과제가 8건이다. 8대 추진전략은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 청정 전남 탄소중립 실현,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글로벌 K-바이오산업 허브 구축, 가장 한국다운 매력 세계적인 관광문화

중심지 구축, 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 육성, 초연결 기반 스마트 SOC 구축, 초광역 연계·협력, 남해안권 신발전거점 조성 등이다. 이들 추진전략에 따라 32개 핵심과제를 도출해냈다.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Energy Island) 조성, 인공태양광연구소 설립,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다도해 특별습지정원 조성, 탄소중립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남해안 탄소소재벨트 구축 등이 우선 포함됐다. 이어 오랜 숙원인 국립과대학 설립,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무안공항 연계 의료특화단지 조성,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 영호남 동서내륙 광역 관광벨트 조성,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등도 과제다. 네덜란드 푸드밸리형 첨단 농산업 융복합 단지 구축, 전남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환경해권 국가 철도망 완성,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한태평양시대 관광,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건설,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매가시터, 다도해 선사인원이 확충,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조성 등도 명단에 들어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24건의 지역발전과제는 성장동력, 관광문화, 보건복지 여성, 환경, 농림수산, SOC 등 6개로 분류했다. 순천만 잡월드(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국가기관 승격,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설립, 국립 사회적경제기업 인재개발원 유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KTX 역사기반 글로벌 여객자 플랫폼 조성, 아세안 스포츠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오전 도청에서 '전남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전남과제' 브리핑을 갖고 전남발전 미래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을 발표하고 있다.

교류센터 설립, 보성강 구석기 문화 박물관 건립,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다도해 분원 건립, 국립 장수 연구원 설치, 남도 보존복합타운 조성, 국립 어린이 신체센터 설립, 수열에너지 활용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KTX 역사기반 글로벌 여객자 플랫폼 조성, 아세안 스포츠

허구관리센터 설립, 섬진강 지방환경청 신설, 농생명 치유·힐링산업 융복합벨트 조성, 해양 미세플라스틱 실시간 관측시스템 구축 등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외에 SOC 관련은 국제 항공훈련장 건설, 무안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 연계 교통망 확장, 호남도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역 구축 등이 들어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사업 이외에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제도 마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지역균형발전 반영 등이 대표적이다. 농어민공약수당 국가정책화 등 국민농업 생태계 구축, 기업·혁신도시지원청 신설 등도 요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득표 2만 3000표 무효표 확정 이재명 득표율 51%→53%...과반 확보 유리

대선주자 5명 득표율 조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중도 사퇴로 발생한 2만3000여표의 무효표를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가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상승하는 등 남은 대선주자 5명의 득표율이 모두 조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4차 회의를 갖고 정 전 총리의 대선 경선 후보 사퇴에 따른 투표율 산정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후보 사퇴에 따른 남은 후보들의 득표율 계산 방법과 관련해 선거위는 전원 일치의 견으로 당규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고 의결했다"며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정세균 후보가 얻은 투표율은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는 59조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0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현재 1위를 기록 중인 이 지사(28만5856표)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17만21790표)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된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만3122표)은 11.35%에서 11.85%, 박용진 의원(6963표)은 1.25%에서 1.30%, 김두관 의원(3526표)은 0.63%에서 0.66%로 각각 바뀐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중앙당 선9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결선투표 생략 요건인 득표율 50%의 여유가 기존 1.41%포인트에서 3.70%포인트로 커지게 되면서 과반 지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당 선관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 지사를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국회의원 사직안 국회 가결...찬성 151표 반대 42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 사직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오는 25~26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배수진을 치며 추석 연휴를 거머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경선 후유증 등을 우려해 만류의 뜻을 밝혔지만, 이 전 대표가 완강한

의사를 거듭 밝히자 결국 처리 쪽으로 선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사직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별히 반대 뜻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 전 대표 사직안은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이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인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제 결심을 의원들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누구보다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보좌진 여러분

에게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놓았다"고 뉘우치는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사직안 가결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에서 169석이 됐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윤호석 전 의원을 떠나보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이다.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최종적으로 내려놓게 됨에 따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도 민주당 공석이 됐다. 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 정순준 전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정주상당 등도 공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경선 선거인단 216만명...역대 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규모가 최종 216만 명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민주당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마감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 결과, 총 선거인단은 216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권리당원·대의원에 더해 앞선 1·2차 모집 때까지 등록된 약 186만명 대비 30만 명 정도 더 늘어난 숫자다.

또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누구보다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보좌진 여러분

에게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놓았다"고 뉘우치는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최종적으로 내려놓게 됨에 따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도 민주당 공석이 됐다. 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 정순준 전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정주상당 등도 공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